



제07-51호

[상세 내용]

일본경제 동향 및 2008년 전망

이 형 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3460-1069)

주요 내용

- ▣ 2007년 일본경제의 기초는 가계부문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과 유럽에 대한 수출 확대,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배경으로 기업부문이 주도하는 완만한 속도의 회복세가 이어짐.

 - 그러나 2007년 중반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가격 급등, 건축 기준법 개정에 따른 건축착공의 대폭 감소 등 마이너스 요인이 대두되면서 경기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의 27개 민간연구소는 2007년도에 평균 1.5%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 정부가 내놓은 2.0% 성장률 전망을 밑도는 것임.
- ▣ 2008년도 일본경제는 건축착공이 잠재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2008년 중반부터 주택 투자, 기업의 건축투자 증가세가 강해져 성장률이 2.0%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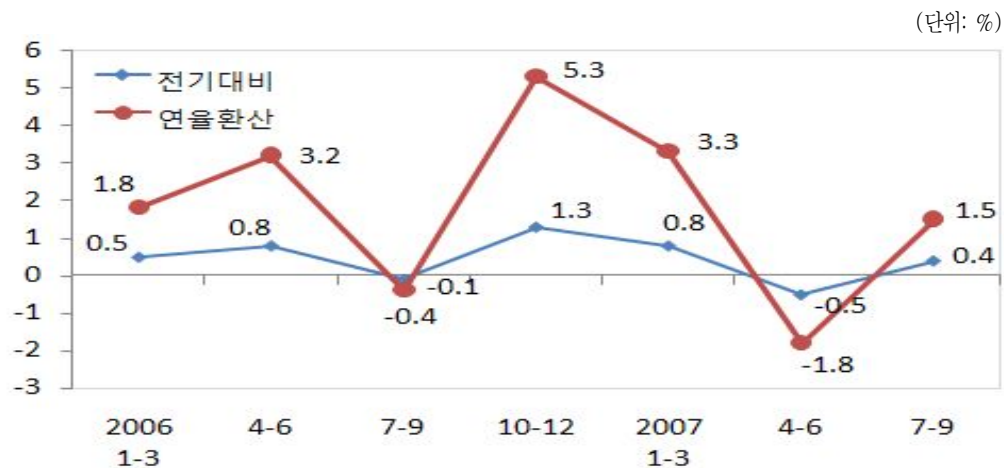
 - 일본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서는 건축착공의 대폭 감소 장기화, 원자재 가격의 급등 지속,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의 심각화, 신흥시장의 버블 붕괴 등이 있음.
- ▣ 따라서 향후 일본정부는 경기하강을 의식한 정책운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건축 확인 심사의 장애를 제거하여 건축착공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또한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목표를 그동안 '금리정상화'에 두었으나 향후에는 '경기하강 리스크'를 보다 중시할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수의 경기전인력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임.

1. 배경

- 일본경제는 2002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경기확장 국면에 있으나, 2007년 상반기에는 2분기 연속 전기대비 실질 GDP 성장률이 하락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년 초 일본정부가 발표한 2007년도 경제성장 목표치인 2.0% 실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¹⁾

그림 1. 최근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2007. 12. 7).

- 또한 일본 제국데이터뱅크의 조사결과(12. 5 발표)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2007년보다 2008년에 일본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일본정부와 민간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경제의 2007년 동향과 2008년 전망에 대해 살펴본 다음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하도록 함.

2. 2007년 동향: 해외수요 주도하에 저성장 시현

- 지난 11월 13일 일본 내각부가 3/4분기 GDP 통계속보(1차 속보치)를 발표한 이후 27개 일본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2007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5%임.

1) 일본 내각부는 '平成19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2007.1.25.)에서 2007년도 경제성장을 명목 2.2%, 실질 2.0%로 전망한 바 있음.

- 이는 연초 일본정부의 전망치(2.0%)보다 낮은 수치이며, 2/4분기 GDP 실적 공표 이후 이들 민간연구소의 예측치였던 평균 1.9%보다 하향 수정된 것임.

표 1. 일본 27개 민간연구소의 2007년도 경제성장 전망(11월 시점)

(단위: %)

	2006년도 (실적) ¹⁾	2007년도(예측)		
		최고	평균	최저
실질GDP	2.3	2.0	1.5	1.0
민간최종소비지출	1.7	2.0	1.7	1.2
민간주택투자	0.2	-5.1	-12.6	-20.0
민간설비투자	5.6	2.0	1.3	-1.2
공적고정자본 형성	-9.2	0.8	-5.3	-6.6
재화서비스 수출	8.2	8.4	7.5	6.2
재화서비스 수입	3.0	3.1	2.3	1.5
내수기여도	1.5	1.2	0.7	0.2
외수기여도	0.8	1.0	0.9	0.6

주: 1) 2006년도는 내각부 자료(2007. 12. 7)에 근거함.

* 일본은행 전망(「경제물가정책 전망」 2007/10)은 2007년도 1.7~1.8%, 2008년도 1.9~2.3%임.

자료: 중소기업금융공고 종합연구소(2007. 11. 29); 내각부 자료(2007. 12. 7)

- 이러한 하향 조정은 1) 건축기준법 개정(6. 20)의 영향,²⁾ 2)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의 장기화, 3) 유가 상승, 4) 임금·소득 회복의 지연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우려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2007년도 일본경제는 감속 방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 광공업 생산이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와 수송기계의 주도하에 회복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 신흥시장 및 유럽에 대한 수출이 견실하게 확대되고 있어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임.

■ 민간수요: 주택건설투자의 급감이 가장 큰 우려 요인

- 주택투자: 8~9월 시기의 예측치인 -2.9%에서 이번에 -12.6%로 대폭적으로 하향 수정됨. 그 배경에는 전술한 건축기준법의 개정이 있는데, 4/4분기에는 이 문제가 가장 크게 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실제로 8월에는 2007년 들어 처음으로 민간건축공사(금액 기준)가 전년동월대비 18.7% 하락함(10월 8일 국토교통성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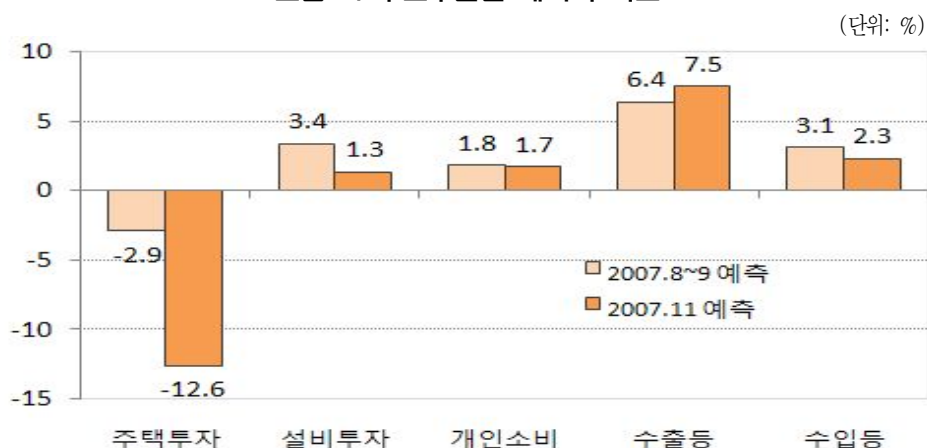
2) 2005년 말 이후 아파트 내진설계 위조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대응책으로 2007년 6월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었음. 이후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건축물 확인 과정의 엄격화, 착공 지연 등이 초래됨.

- 설비투자: 이전 예측치인 3.4%에서 이번 1.3%로 하향 수정됨. 기업의 풍부한 현금흐름과 국내생산의 증가가 기초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는 건축기준법 개정에 따른 건설투자의 부진이 하향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인소비: 이전의 예측치와 큰 차이는 없으며, 임금상승세 둔화와 석유·식품 등 생필품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지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건축기준법 개정 이 건설 관련 분야의 고용을 감소시켜 개인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해외수요: 신흥시장 및 자원보유국에 대한 수출 확대가 성장을 견인

- 신흥시장 및 자원보유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의 예측치(6.4%)에서 상향 수정됨. 향후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가 대미 수출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경제의 감속 영향이 확대되면서 현재의 전반적인 수출호조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수입은 국내수요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이전 예측치에서 하향 수정됨(〈그림 2〉 참고).
- 한편 日本貿易会(12.5)에 따르면, 2007년도 수출총액은 자동차·플랜트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10.6% 증가한 85.6조 엔(4년 연속 2자리 수 증가), 수입총액은 동 8.5% 증가한 74.2조 엔으로 예상됨. 또한 2007년도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12.9조 엔)와 소득수지 흑자(16.8조 엔)가 예상됨에 따라 25.8조 엔의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단 서비스수지와 경상 이전수지가 각각 2.6조 엔과 1.3조 엔 적자 발생).

그림 2. 수요부문별 예측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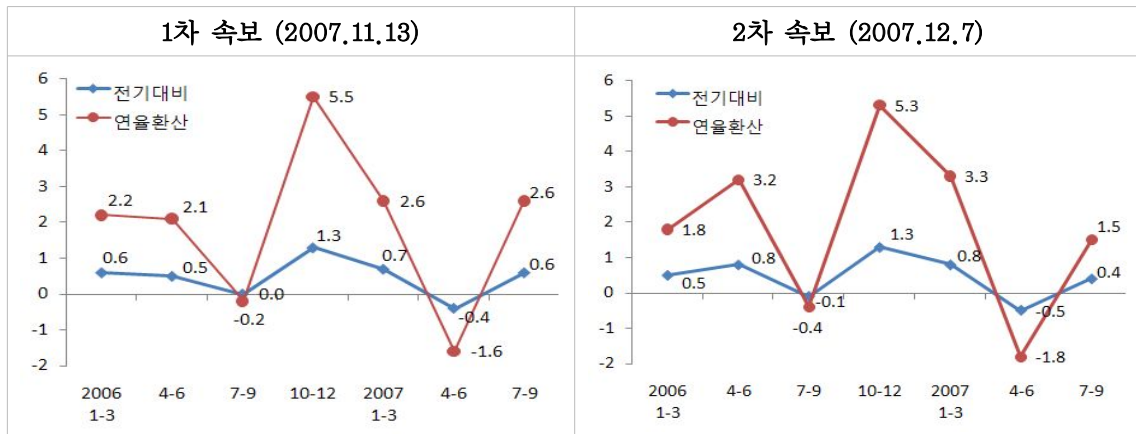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 이에 따라 해외수요 기여도는 +0.9%가 되어 내수 기여도(+0.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07년도 일본경제는 전반적으로 해외수요가 견인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일본 내각부가 12월 7일에 발표한 2차 속보에서는 2/4분기 및 3/4분기의 GDP 수치가 1차 속보에 비해 더욱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상기 민간연구소들의 2007년 일본경제에 대한 전망치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11월 13일 발표된 1차 속보에서 금년 2/4분기와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1.6%, 2.6%였으나, 12월 7일의 2차 속보에서는 각각 -1.8%, 1.5%로 하향 수정되었음.
- 이러한 GDP 수치의 조정은 수요부문별로는 특히 설비투자(1.7% → 1.1%) 및 수출(2.9% → 2.6%) 부문의 하향 수정에 기인함. 이에 따라 국내수요의 기여도는 -0.1%를 기록한 반면 해외수요 기여도는 0.5%를 기록함.

그림 3. 내각부 1차 및 2차 속보의 분기별 GDP 수치 차이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2007. 11. 13 / 2007. 12. 7).

표 2. 내각부의 1차 속보 및 2차 속보 비교

	2007년 / 7~9월			
	전기대비(%)		기여도(포인트)	
	1차	2차	1차	2차
실질GDP (연율 환산)	0.6 (2.6)	0.4 (1.5)	-	-
국내수요	0.2	-0.1	0.2	-0.1
민간최종소비지출	0.3	0.3	0.2	0.2
민간주택투자	-7.8	-7.9	-0.3	-0.3
민간설비투자	1.7	1.1	0.3	0.2
공적고정자본형성	-2.6	-2.3	-0.1	-0.1
해외수요 기여도	-	-	0.4	0.5
재화서비스 수출	2.9	2.6	0.5	0.4
재화서비스 수입	0.5	-0.2	-0.1	0.0

자료: 일본 내각부(2007. 12. 7).

■ 2007년 일본경제의 기초

- 가계부문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과 유럽에 대한 수출 확대,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배경으로 기업부문이 주도하는 완만한 속도의 회복세가 이어짐.
- 그러나 2007년 중반부터 1)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 2)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가격 급등, 3) 건축기준법 개정에 따른 건축착공의 대폭 감소 등 마이너스 요인이 대두되면서 경기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음.
- 해외요인: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감속하는 방향에 있음. 특히 미국에서는 가계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어, 서브프라임 문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한편 신흥시장과 자원보유국은 기본적으로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음.

3. 2008년 전망: 안정 성장 지속 예상

- 앞서 27개 민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08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0%임.
- 2007년도와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2008년도에는 해외수요(0.4포인트)보다는 국내수요(1.6포인트)에 의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임.
- 2008년도에 들어선 후 건축착공이 잠재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2008년 중반부터 주택투자, 기업의 건축투자 증가세가 강해져 성장률이 개선될 전망이나, 강한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08년에 일본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1) 건축착공의 대폭 감소 장기화, 2) 원자재 가격의 급등 지속, 3)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의 심각화, 4) 신흥시장의 버블 붕괴 등이 있음.

표 3. 일본 27개 민간연구소의 2008년도 경제성장 전망(11월 시점)

	2008년도(예측)		
	최고	평균	최저
실질GDP	2.5	2.0	1.4
민간최종소비지출	2.3	1.5	0.2
민간주택투자	19.0	6.8	-6.7
민간설비투자	6.6	4.1	1.1
공적고정자본 형성	0.9	-4.1	-8.1
재화서비스 수출	8.1	5.6	2.7
재화서비스 수입	6.9	4.3	1.0
내수기여도	2.3	1.6	0.9
외수기여도	0.7	0.4	0.0

자료: 중소기업금융공고 종합연구소(2007. 11. 29).

- 한편 제국데이터뱅크가 지난 11월 말에 실시한 「2008년 경기전망에 대한 기업 의식조사」(12. 5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경기 전망이 악화 43.1%, 정체 28.2%로 나타나 일본기업들은 금년보다도 내년에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음. 2008년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5.2%에 불과했음.
- 경기 악화를 전망한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8.0%)보다는 중소기업(44.6%)이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47.9%), 소매업(47.3%), 농림수산업(46.4%)에서 많았음.
- 또한 경기 악화의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문제, 유가 급등, 엔고, 주가 하락, 개정 건축기준법의 영향 등의 요인을 지적한 기업이 많았음.

그림 4. 일본 기업의 2008년도 일본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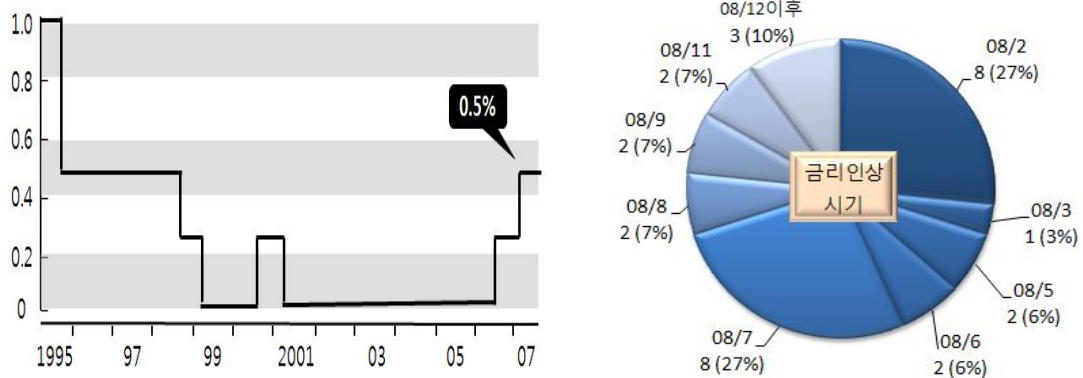
주: 조사대상은 전국 20,292개사 가운데 10,131개사가 응답(응답률 49.9%).

자료: 제국데이터뱅크(2007. 12. 5), 「2008년 경기전망에 대한 기업 의식조사」.

- 또한 日本貿易会(12. 5)에 따르면, 2008년도 수출총액은 엔고와 세계경제의 감속에 따라 전년도 대비 6.3% 증가한 91.3조 엔(2007년도는 10.6% 증가 예상), 수입총액은 내수 회복 지연, 엔고 등의 요인에 따라 전년도 대비 0.9% 증가에 그친 74.9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2008년도 경상수지 흑자는 31.4조 엔으로 2년 연속 5조 엔 규모의 증가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것은 무역수지 흑자(17.4조 엔)와 소득수지 흑자(17.5조 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허사용료 수입 확대, 방일 외국인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가 감소(2.3조 엔 적자)하고 경상이전수지 적자도 감소(1.2조 엔 적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11월 정책결정회합에서 금리 동결(0.5%)을 결정했음. 일본은행은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금리 정상화 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1)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에 따른 신용 수축 및 해외경기 둔화 리스크 잔존, 2) 건축착공 부진 등을 배경으로 한 국내경기의 감속 경향에 따라 당분간 금리인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후쿠이 일본은행 총재는 그동안 여러 강연 및 회견에서 중기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해외경기의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사단법인 경제기획협회가 12월 초 36명의 이코노미스트(조사기관 포함)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12. 6 발표), 시장의 전문가들은 2008년 1월까지 금리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60% 정도가 2008년 하반기에나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5. 금리변화 추이와 향후 금리인상 예상 시기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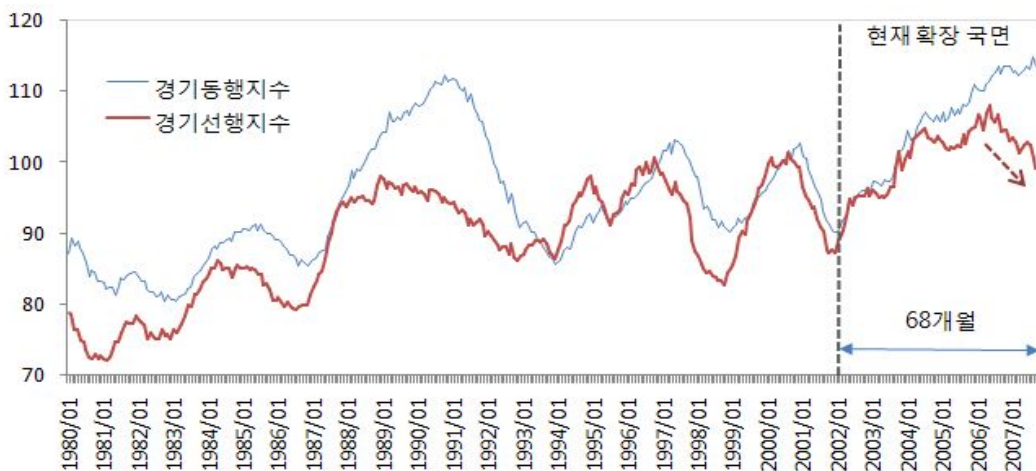
주: 1999년 2월 제로금리정책 도입, 2000년 8월 해제, 2001년 3월 복귀, 2006년 7월 해제.

자료: 일본은행; 경제기획협회(2007. 12. 6).

4. 향후 정책과제

- 일본경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외부충격’과 건축착공 감소라는 ‘정책충격’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와 일본은행의 전망과 달리 경기하강의 조짐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선행지수도 현재의 경기 확장국면에서 후퇴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5.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일본정부는 경기하강을 의식한 정책운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건축 확인 심사의 장애를 제거하여 건축착공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 즉, 1) 법개정의 본래 목적인 ‘내진위조 방지’가 아닌 ‘무차별적인 기업도태’라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 2) 건축착공의 감소는 그 후 1년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경기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1) 운용방법의 명확화, 2) 검사작업의 신속화, 3) 서류 간소화를 통한 부담 경감 등이 필요.
- 또한 일본은행은 완만한 경기확대를 전제로 한 ‘금리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기하강 리스크’를 경계하는 금융정책의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실물경제가 예상 외로 악화될 경우에는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연한 정책운영이 필요할 것임.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수의 경기견인력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임.
- 해외경기의 감속, 해외주가의 하락, 신용불안의 파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일본경제가 전체적으로 외부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취약해지고 있음. 강력한 성장전략을 단행함으로써 소득향상 저조,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본경제는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견인하고 있으나, 신흥국이 언제까지나 고성장을 계속한다고 볼 수는 없음. 신흥국의 경제발전이 일본경제를 지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향후 수년 사이에, 성장촉진을 축으로 하는 구조개혁을 재실시하여 국내부문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